

청렴과 결백의 전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끝내고 돌아오던 중 좁은 골목에서 박스를 가득 실은 손수레와 내 자동차가 교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자동차와 손수레가 바짝 붙다보니 내차가 손수레를 슬쩍 밀치고 말았다. 그러자 수레를 끌던 할아버지가 기우뚱하더니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할아버지께 다가가 다치지 않았냐고 물으며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엉덩이를 툭툭 털며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있었다.

“내가 더 바깥쪽으로 피했어야 했는데 리어카가 자동차 옆으로 다가가서 그랬나 봐요. 자동차는 상하지 않았어요?”

순간 말문이 막혀 할아버지를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못사람들에 치이다보니 잘잘못을 떠나 먼저 사과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는 듯했다. 거기다가 대개의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노려 목부터 잡으며 엄살을 피우는 것이 일상이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은 다치지 않았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가면 뺨소니로 몰릴 수 있다. 또 내일이면 피해자가 다른 말을 할 수 있다고 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자동차를 골목에 주차시키고 할아버지의 손수레를 밀고 댁까지 함께 갔다. 할아버지는 흔히 벌집이라고 불리는 쪽방에서 혼자 살고 계신 독거노인이었다. 방 한 칸에 조그만 부엌이 한 개였다. 라면만 먹고 살았는지 부뚜막에는 찢어진 라면봉지가 널려있었다. 냉장고가 있어 열어봤더니 달랑 고추장이 담긴 통 하나만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냉장고에 넣을 것도 없고 전기세가 아까워 코드를 빼놨다며 멋쩍어했다. 매스컴에서 150만의 독거노인의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직접 눈으로 보니 말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할아버지 내일 또 들를 테니 아픈 곳이 생기는지 살펴보세요.”

나의 당부에 할아버지께서는 올 것 없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쌀과 김치를 챙겼다. 그리고 남편이 입던 옷 중 유행이 지난 깨끗한 옷을 보자기에 썼다. 오늘 만난 할아버지의 부엌 모습이 떠올랐고 입은 옷이

남루했기 때문이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는 흔히 나이롱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런 원인으로 보험료가 상승하고 낭비되는 돈이 얼마나 많던가? 그런데 박스를 주우며 벌집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나이롱환자라는 꼬수를 쓰지 않았다. 일하기도 어렵고 돈벌이도 쉽지 않은데 사고를 핑계로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편히 지내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다치지 않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양심을 택한 것이다. 한마디로 부정과의 결탁을 과감히 뿌리친 것이다.

이튿날 나는 쌀 한 포대와 김치와 옷가지를 챙겨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더니 할아버지는 오히려 역정을 내셨다. 그래도 나는 몸에 이상이 없는지 물었다.

“몸은 괜찮으니 이젠 올 것 없어요.”

그만 오라고 손사래 치는 할아버지께 먹거리와 입을 거리를 내놓고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지내자고 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식사 봉사하다 보니 아주머니들이 남은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다. 한 때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후 남은 음식을 가져가지 말자고 우리들 스스로 결의를 한 때가 있었다.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기로 하면 어르신들께 나눠줘야 할 음식을 아끼게 됩니다. 남겨서 집으로 가져갈 욕심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없으니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한두 사람이 음식을 남겨서 집으로 싸가다 보니 이제는 모두가 그리했다. 그런 모습이 눈에 거슬렸으나 나는 반찬에 손을 대지 않았다. 어른들이 실컷 잡수시도록 충분히 배식을 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인지 그 음식을 나도 한 봉지 싸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홀로 살던 독거노인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조금만 싸다 드리면 맛있게 잡수실 텐데…….’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나는 남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아무리 남은 음식이라도 그것은 사물이 아닌 엄연히 공물이었다. 공물을 사적으로 취하면 이는 부정인 것이다.

며칠 후 나는 김치를 담가 구린 후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부뚜막에 널려있던 라면 봉지가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다. 흔히 우리는 라면을 끓이면 김치가 생각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찬도 없이 라면만 드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 별일 없으셨죠?”

내가 반갑게 인사를 하자 할아버지께서는 호주머니를 뒤적이더니 5만 원짜리 돈 2장을 내게 내미셨다.

“얼마 전 아주머니께서 가져다준 옷 속에서 나온 돈이에요. 아마 남편께서 몰래 비상금으로 감춰두었던 돈이었는데 찾지 못했던가 봐요.”

순간 그 분이 내민 돈을 받아야할지 말아야할지 망설였다. 그렇다고 청렴과 결백의 돈 10만원을 할아버지께 그냥 쓰시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러면 그 분의 진실에 먹칠을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양심의 돈 10만원을 받아두고 시장으로 갔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속옷을 샀다. 이 세상에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물려줘도, 속옷만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던가? 그렇게 속옷을 사들고 할아버지 댁으로 향하자니 왠지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이거 사장님 돈을 횡령한 죄로 우리 둘 다 감옥에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속옷을 받아든 할아버지께서 농담을 하셨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맺은 인연으로 나는 그 분에게서 청렴과 결백에 이어 정직까지 배우고 있다.

“올 생신 때는 저희들이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딸과 사위가 내 생일을 챙긴다며 우리 집 앞에 자동차를 대기시켰다. 나와 애들은 자동차를 타고 음식점으로 향했다. 한참을 가던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내 몸이 붕 떠 자동차 천장을 들이받았다.

“어이구.”

자동차가 서고 우리는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 자동차 4대가 연쇄추돌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차에서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손으로 고개를 받치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나오는 것이었다. 나 역시 고개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했으나 손으로 머리를 고일 정도는 아니었다.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운전자들끼리 옥신각신 했으나 쉽게 해결할 수 없었다. 결국 보험회사가 출동해 쌍방과실로 해결되었으나 아픈 사람이 문제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회사로 연락을 주세요.”

보험회사 직원이 말했다. 점심을 먹고 집에 도착한 사위는 내 걱정을 했다.

“어머님, 병원에 입원을 하시죠. 그래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위의 말에 내가 한마디를 했다.

“별로 다친 곳도 없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이 사람아,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해.”

나의 단호한 어조에 사위는 멍청했다.

“이번 사고로 자네 부부가 하는 일에는 내가 간섭을 안 하겠지만 나는 별로 다친 곳이 없는 것 같으니 병원에서 검사만 하고 이상이 없으면 끝내겠네.”

나는 병원에 가서 X-RAY를 찍어보니 몸 어느 곳에도 별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이상 없음을 통보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어르신이군요.”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때로는 칭찬을 듣는 때가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도 다치지 않았다면 구태여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사고 났으면 입원이라는 등식이 내재해 있다. 그리고 다음 수순은 밀고 당기며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그 합의에는 돈이 매개체로 등장하니 우리 사회의 부조리 중 하나이다.

나는 박스를 주워 근근이 살아가는 어른한테 사회부조리 타파를 위한 청렴과 결백을 배웠다. 자동차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한 후 돈을 뜯어내면 몇 년 고물을 줍는 것보다 훨씬 나올 수 있다. 내가 물려준 옷 속에 들었던 돈 10만원은 아무도 모르는 돈이다. 그 돈 10만원이면 그깟 박스 줍는 것보다 몇 배는 남는 장사이다. 그런데도 청렴과 결백으로 양심껏 살고 있으니 내가 그 분을 보고 배운 것이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청렴과 결백이 곳곳의 사람들에 전이되어 사회가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